

석사학위논문

제주의 자연환경을 형상화 한
실내 도자 벽장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Ceramic Wall Decoration
Focused on the Nature of Jeju Island*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요업디자인학과 요업디자인 전공

송 미 자

제주의 자연환경을 형상화 한
실내 도자 벽장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Ceramic Wall Decoration
Focused on the Nature of Jeju Island

지도교수 박 석 우
본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요업디자인학과 요업디자인 전공

송 미 자
2007년 2월

송 미 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2007 년 2월

<목 차>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V
국문요약.....	V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4
1. 실내 도자 벽장식의 일반적인 고찰.....	4
1) 도자 벽장식의 특성 및 역사적 배경.....	4
(1) 역사적 배경.....	4
(2) 실내 벽면의 공간적 특성.....	9
2) 도자 벽장식의 유형.....	10
3) 도자 벽장식의 현대적 경향.....	14
2. 제주의 자연환경에 의한 일반적 고찰.....	18
1) 자연환경과 조형성.....	18
2) 오름, 화산석, 역사의 특징.....	19
3) 자연환경에 의한 삶의 형태.....	22
3. 제작과정 및 작품해석.....	27
1) 제작의도 및 배경.....	27
2) 제작과정.....	29
(1) 성형 및 표현기법.....	29
(2) 유약과 소성.....	30
(3) 작품 및 설명.....	33
III. 결론.....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 목차>

<표1> 소지 조합비.....	30
<표2> 광택 투명유 조합비	31
<표3> 무광택 투명유 조합비	31
<표4> 소성 그래프.....	32
<표5> 소성 그래프.....	32

<도 목차>

<도1> 타워호텔 도벽-김수근 작.....	7
<도2> 페르시아의 무인행렬상의 사수.....	7
<도3> 백제의 수막새.....	7
<도4> 고구려의 수막새.....	7
<도5> 백제의 귀형문전.....	7
<도6> 백제의 산경문방전.....	7
<도7> 통일신라시대의 녹유 귀면와.....	8
<도8> 신라의 보상화문 방전.....	8
<도9> 경복궁 교태전	8
<도10> 경복궁 자경전.....	8

<도11> 창덕궁 상량전.....	8
<도12~14> 모자이크형.....	12
<도15~16> 평면 타일형.....	12
<도17~18> 고 부조형.....	13
<도19~21> 저 부조형.....	13
<도22> 크리스토퍼 그라이더 작.....	17
<도23> 꿈-여행-심연보 작.....	17
<도24> 이 태홍 작.....	17
<도25> 데브블랙 스테블리 작.....	17
<도26> 도벽-권재근, 안성주 작.....	17
<도27> 욱실-도미니크 크린슨 작.....	17
<도28~29> 오름 유형.....	25
<도30~31> 현무암.....	25
<도32> 받담.....	25
<도33> 울담.....	25
<도34> 산담.....	26
<도35> 갈대와 억새.....	26
<도36> 돌담과 억새의 조화.....	26
<도37> 돌담 틈.....	26
<도38~도39> 건축재료/돌팡, 올레.....	26

<작품 목차>

<작품1> 일출.....	36
<작품2> 돌담 틈.....	40
<작품3> 일몰.....	44
<작품4> 제주사람.....	48
<작품5> 돌거품.....	52
<작품6> 오름의 신비.....	56
<작품7> 오름을 품은 돌과 억새.....	60
<작품8> 억새를 담은 돌.....	64
<작품9> 밭담.....	68
<작품10> 고랑(古浪).....	72
<작품11> 물허벅.....	76
<작품12> 억새 오름.....	80

국 문 요 약

제주의 자연환경을 형상화 한 실내 도자 벽장식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과 예술작품을 접목시켜 시각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사회문화에 의한 삶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른 생활공간의 범위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적 분야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내 도자 벽장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실내벽면에 장식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자 벽장식의 표현양식이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 내제된 독특한 섬 문화의 특징과 어우러지는데 중점을 두어 작품제작을 전개하였다. 또한, 도자벽장식의 표현적 특성과 현대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자연에서 느끼는 삶의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의 조화를 연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판상성형을 중심으로 투각, 음·양각 기법을 통해 내·외부로 분리되는 공간감 형성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자연에서 오는 색채와 빛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색안료와 색유리, 전등을 조화시켜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각각의 작품 특성을 고려해 타재료와 접목함으로써 수공예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저부조 형식의 입체감으로 안정감을 주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연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상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대상을 통해 제작된 도자 벽장식이 실내 환경 조성과 함께 삶의 활력을 주는 조형예술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간 개념 속에서 자연을 순응 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생활공간의 영역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장식을 뛰어넘어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즉 시각적인 즐거움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공간에서 도자 벽장식의 적용은 조형예술로써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대의 도시환경은 자연의 파괴 속에서 문화적 자연환경의 재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자 벽장식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간적 미를 부여시키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흙은 가장 원초적인 재료이며 전통적인 소재이다. 이러한 재료의 본질성을 갖고 장식의 현대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내부공간의 벽면 장식효과는 인간과 가장 자연친화적인 공간과의 소통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공간의 미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생명력을 탐구하고 자연 속에서 느꼈던 감성이 시각적인 미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의 본질과 하나의 결합된 흐름으로 나타냄을 밝히고자 한다.

유년시절 바라본 자연환경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응의 지혜를 터득 하게 하였으며, 화산섬이라는 특이한 자연 환경 속에 비와 바람과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농경생활이 힘들었던 과거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자연을 극복 하려는 선인들의 정신문화가 내포 되어있다. 자연을 극복하기위해 형성된 또 다른 자연이 존재하고 이러한 외형적인 미속에는 삶의 문화와 지혜가 담겨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민의 삶과 연관성 있는 관념적인 대상을 통해 도자

벽장식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 했으며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과 흙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타 매체를 접목함으로써 다른 미술장식에 비해 촉각성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더불어 정서감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공간 활용에서 벽면의 조형성이 환경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 했을때 다른 재료의 미술장식에 비해 긍정적으로 반응 하리라 본다.

자연의 생명력에서 보여 지는 색채와 질감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거공간, 상업공간에서의 도자 벽장식이 기능과 감성으로 결합된 조형예술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현대의 생활공간은 사회문화가 변화하는 삶의 형태에 의해 실내 벽면장식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실내 벽장식이라는 부분은 시대에 매우 민감하고 시대의 사람들의 개성과 시대성자체, 그리고 역사적 환경 등 인간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매우 빠르게 표현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진척도 이에 발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도자 벽장식이 일반적인 고찰과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작과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도자 벽장식의 일반적인 고찰을 살펴보기 위해 1960년 이후의 도자 벽장식에 대한 참고사진과 월간지, 문헌, 1990년 이후의 학위논문을 숙지하였다. 역사적 배경에서 시대의 미적가치를 표현한 문화적인 측면과 실내공간의 벽면 장식의 특성과 더불어 최근에 작가들의 작품경향을 통해

표현양식의 흐름을 파악 하였다.

둘째, 제작과정이 배경이 된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문헌과 문화연구소의 학술자료 등을 통해 제주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자연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조형성에 대해 제시하고, 특히 작품의 모티브가 된 오름, 화산석, 억새의 정의와 특징을 배경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형태를 통해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셋째, 미술장르의 벽장식 중에 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흙과 불이라는 자연의 굴레에서 표현되어지는 자연스러움과 유동성을 살려 작품 제작에 도입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가압성형, 펀칭기법 등을 혼합병행 하였으며 음·양각, 투각기법 등을 통해 자연의 사실적인 표현과 재질감을 저부조 형식으로 묘사했다.

타 재료인 유리와 한지, 삼베 등을 조화시켜 재료의 접목성으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색채의 깊이를 주기 위해 1차소성 후 이산화망간(MnO_2), 산화코발트(Co_2O_3), 산화크롬(Cr_2O_3) 등을 1차 시유한 후 다양한 색안료에 투명유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혼합하여 자연적인 색감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도자 벽장식은 설치 장소에 따라 내부와 외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실내공간을 위한 벽장식을 연구함에 있어 내부에 설치된 도자 벽장식 참고사진과 월간지의 작가의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최근에 들어서 도자 벽장식의 설치장소와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른 현대적 경향에 의한 표현양식을 조사 하였다. 또한, 제주 자연환경의 구체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통해 자연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제주민의 삶의 형태를 제시하고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미적개념을 현대적 경향에 따른 표현양식에 의해 결합시켜 보고자 한다.

1. 실내 도자 벽장식의 일반적 고찰

1) 도자 벽장식의 특성 및 역사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현대 사회는 생활공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건물 내·외부 공간의 벽장식 설치가 급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내공간 규모 성격이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이 인식의 영향을 주는 데는 벽면 역할이 중요시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도벽의 활성화가 된 1960년대에 들어 도자 벽장식은 도예가, 미술가등에 의한 건축에 직접적인 참여라는 의미에서, 환경미술로써의 도자 벽장식의 활용은 시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도1>

BC 5000년경 서아시아에서 지역벽돌 제조공 들이 밀집으로 묶어서 굽지 않은 채 사용했던 덮개 없는 화덕에 구워 강화시키면서 시작 되었다.¹⁾

1) David haniton 「Architectural Caramics」(Landon:Thams &Hudscn) 1978 p10

이집트인들이 진흙벽돌을 외장용으로 쓰고 파라오 궁전의 장식에 활용하여 타일 공업이 이루어졌고 유약을 발라 제작한 타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벽돌과 타일제조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급 되었으며 이 시대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벽화가 제작 되었다. <도2> 여러 가지 장식적 기교는 서아시아 지역에 발달하였으며 10C에는 이슬람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기하학적인 전성기를 맞았다.

그 후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시대를 거치면서 벽화의 기법이 다양하게 발달 되었다. 도벽의 역사 속에는 그 시대의 종교적 존엄성을 나타내는 건축 장식과 권위를 옹호하는 궁전의 내·외부 장식에서 건축의 일부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에서는 건축에 도자를 활용한 근원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주 시대에 최초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에 고건축물의 외관이나 집의 바닥장식, 용마루, 기와등에서 전(搏)이 건축에 응용되고 보편화 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집의담장의 무늬를 장식하게 되고 고려시대에는 청자로 기와나 전을 만들었다. 특히 기와에서 입체적인 장식품들이 치장하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특성을 지니고 시대성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쉽게 구별되는 것이다. <도3~도4> 삼국시대 중기 이 후에는 무늬와 조각에서 표면이 문양으로 장식 되었는데 백제에서는 고구려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표현에 비해 표면이 부드럽고 문양은 복잡하면서 섬세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도5~도6> 백제의 고분벽화는 그림을 그릴 경우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호분으로 사신을 그린 것이나 무령왕릉의 경우 예전의 고분벽화는 전문이 평면적인데 비해 조각적이고 아름다운 연문전을 썼기 때문에 굳이 벽화를 그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모른다.²⁾ 또한, 신라시

2) 김원룡, 「한국의 벽화고분」 일지사 1980

대의 도깨비 문양은 녹유 귀면와의 전체적인 형태와 전각내외의 바닥에 깔던 도제 타일이며 크기, 두께, 문양등 구성적인 부분을 수공예적인 가치성으로 인정할 때 현재 요업의 전문성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7~도8>

고려시대의 전은 불교가 다소 쇠퇴하는 시기여서 삼국처럼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듯 하며 문양전으로는 담벽이나 실내 벽면을 장식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양각된 보상화문전, 장방형의 연화문전 등이 만월당에서 발견되고 있다.³⁾

조선시대는 불교의 쇠퇴로 사원건축의 축소와 함께 단아한 기풍의 진작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유물이 파괴·수탈되었으며 경제적인 부담은 그동안의 건축을 부진한 상태로 만들었다. 따라서 건축물에 응용되었던 도예의 실천의지는 급속도로 약화 되었다⁴⁾.

조선시대의 전은 주로 궁궐이나 저택의 담 벽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경복궁, 창덕궁의 담장 등에서 조선시대의 꽃담은 모든 예술분야의 디자인요소로 응용되고 있어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시대적인 미적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도9~도11>

건설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후 1920년대 한국은행 본관에서 서양 타일을 이용으로 1930년대에는 처음으로 타일생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서울의대 본관 건물에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⁵⁾

이로 인해 도자 벽장식은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건축자재로서의 기능과 벽면의 장식성을 겸비하여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고건축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감정표출, 문양, 기법에서 예술의 합일적인 실현의 출발임을 알 수 있다.

3) 김원룡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1

4) 신영훈, 조정현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기문당 1990

5) 건설부 「옥조의 표준화 및 타일의 규격 대형화에 관하여」 (서울:건설부)1979 참조

<참고도판>



<도1> 타워호텔 현관 출입구, 김수근
1967



<도2> 무인행렬상의 사수, 페르시아
5세기



<도3> 백제의 수막새



<도4> 고구려의 수막새



<도5> 귀형문전, 백제



<도6> 산경문방전, 백제



<도7> 녹유귀면와, 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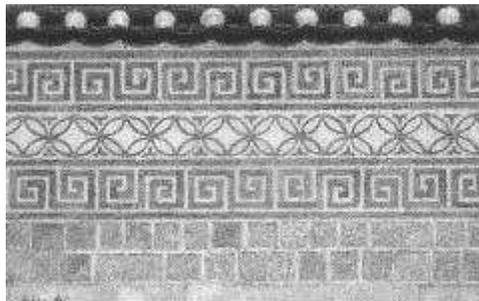
<도8> 연화보상문수막새, 통일신라



<도9> 경복궁 교태전 아미산굴뚝
대나무, 국화무늬



<도10> 경복궁 자경전뒤편, 담장의
태극무늬, 석쇠무늬



<도11> 창덕궁 상량전앞의 꽃담,길상무늬

(2) 실내벽면의 공간적 특성

인간이 영유하는 생활공간은 단순히 기본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한 영역 안에 머물지 않고 건축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주거 형태 및 생활 방식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공간은 자연적 요소로부터 차단된 공간이므로 외부공간과는 다르게 인공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내공간의 기본 요소 중에서 기둥, 벽, 천장, 바닥, 등의 역할이 동시적이어야 하지만 특히, 실내공간이 성격의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이 효과를 주는 데는 벽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의 시선과 직면하여 시지각상 가장 구체적인 대상이 되며 시선의 방향도 눈이 높이를 기준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간 요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야의 직각인 벽이며 인간의 기교를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은 벽이라 할 수 있다.⁶⁾ 이러한 벽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구조적인 측면의 개념을 떠나서 벽면에 장식의 적용은 어떤 형태나 색 질감을 부여 하고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

장식은 형태에 추가된 형태⁷⁾로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벽면에서의 장식 활용의 범위는 다양하다. 또한, 실내 공간의 유형적 특징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매개체적인 수단으로 보편성이 강한 경향을 지닌 특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인 문명이 충격과 개별적인 특성으로 돌출된 제 요소를 융합하여 조화시키는 개념이다. 즉 벽면장식은 환경과의 조화, 전통의 고려, 자연주의, 표현주의 실험이며 장식의 유형, 재료, 시공 방법 등으로 벽면장식을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형태로 때로는 입체감 있는 조형으로 그 특성을 표현 한다. 이것은 작가 자신을 표현하는 분출구라 해석이 된다. 이러한 특징 속에 실내 벽면의 기본적인

6) 박경자, 「실내 공간의 벽 조각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1980

7) 박대경 편 「디자인 용어 사전」서울 미진사 1981

구성은 표현 형태에 따라 공간 이미지는 변화하겠지만 벽면공간의 연계성이나 기능성을 검토하고 공간 내에 생활하는 거주자의 개성이나 건물의 이미지 또는 공공장소일 경우 대중과의 소통, 주의환경과 조화된 표현 형태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제작에 앞서 실내공간에서 벽면장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작하면 흙이라는 매체가 벽면에 활용되는 가능성이 넓어져 장식이 주는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된다 .

2) 도자 벽장식의 유형

앞서 살펴본 실내 벽면장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치장소에 따른 유형을 선택하고 제작한다면 도자 벽장식은 공간의 조형미를 보다 풍부하게 조성할 수 있다.

실내 벽장식의 종류와 유형에는 조형에 따라 분류하는 표현의 돌출 여부와 다양한 표현기법에 의해 크게 평면형과 부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형에는 모자이크형과 타일형, 부조형으로는 고부조형과 저부조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평면형

① 모자이크형

BC 3000년경부터 미술에 응용 되었으며 평면적이고 느낌이 딱딱하여 각의 도판이 모여 유약의 시각적 효과와 전체적인 회화적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세밀한 표현은 제작시 긴 시간이 요구되며 감상에도 충분한 가시거리를 뒤야 한다. <도12~도14>

② 평면 타일형

타일의 색상과 질감의 장식적인 요소나 새로운 건축물의 내·외벽의 미장의 목적과 수명을 연장시켜 주며 내구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건축물의 기능과 개성에 비추어 독창적인 타일을 사용하면 타일에서 나타나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평면적인 단조로운 구성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기하학적인 면 분할이나 타일위에 그림을 그려 현대적이고 경쾌한 타일형을 제작할 수 있다. <도15~도16>

2) 부조형

부조는 조각에서 이용되는 표현양식의 하나이며 부조가 조각과 다른 점은 배경과 형태와의 관계이다. 부조의 표현은 반드시 바탕 위에 이루어지므로 배경의 중심에서 표현이 들어오고 나오는 정도의 양각과 음각이 표현방법이 있고 돌출된 부분과 배경과의 차이에서 고 부조형과 저 부조형으로 나뉜다.⁸⁾

① 고 부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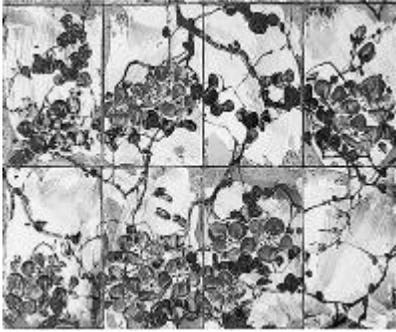
표면 볼륨감이 높은 부조로써 입체감이 매우 뚜렷한 경우를 고 부조형이라 한다. 뚜렷한 입체감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활기와 약동감을 느끼게 하며 만져보고 싶은 촉감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 표면 돌출로 인한 공간의 면적 동선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두께에 있어서 소성과정에서 변형을 우려해서 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17~18>

② 저 부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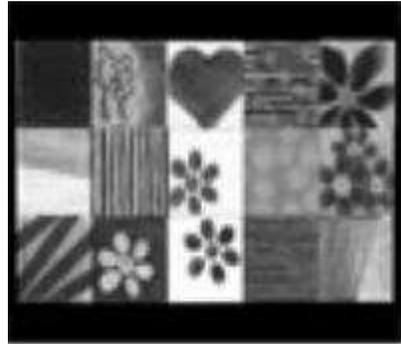
부조형 중 표면 볼륨감이 높이가 보통이거나 낮은 부조를 일컬으며 저 부조형 형태는 잔잔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도자 벽장식에서 다양한 작품의 성향을 이루고 설치장소와 규격에 따라 흙이 자연색과 질감이 용이하며, 사실적인 표현과 기하학인 문양이 보편화 되고 있는 유형이다.<도19~21>

8) 이재삼, 「도벽@ 환경도예」 제3도예연구소 2001

<참고도판>



<도12> 분장도벽화, 김순식 2003



<도13> 꿈, 신영주 2005



<도14> 변화, 준가네코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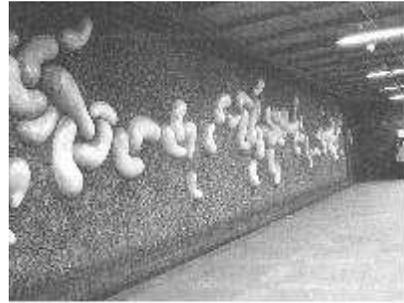
<도15> 계단, 도미니크 크린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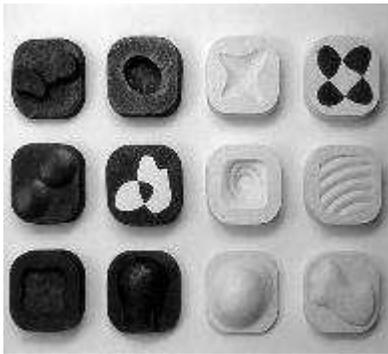
<도16> 욕실, 윤장식 2004



<도17> Simple Truth, 낸시주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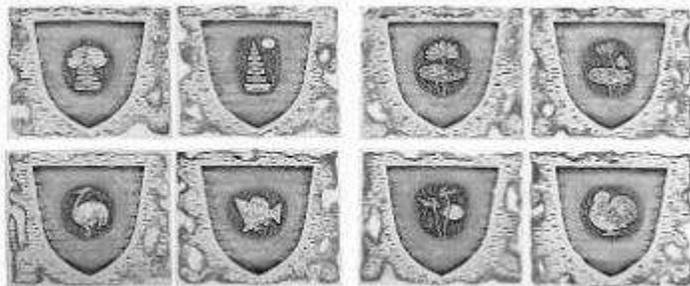
<도18> 부산역, 삶 장수홍 1987



<도19> Lucas-Sombras 앙헬가라자 2000



<도20> 제주프린스호텔, 생성 이영학
1994



<도21> 빗살 그리움, 전영신 2003

3) 실내 도자 벽장식의 현대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도자 벽장식의 현대적 경향을 표현 양식과 설치공간에 따른 부착, 판넬형식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현대적 경향이라는 연구대상에서 현대적 개념은 다른 각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도자 벽장식이라는 조형적인 부분은 시대의 사람들의 개성과 환경적인 요소 등 총체적인 것들이 매우 빠르게 표현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벽장식의 영역 확대에 효과적인 가치를 부여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자 벽장식은 심리적, 문화적,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내공간의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획일화 되어가는 공간의 형태를 미화(美化)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도자 벽장식은 건축과의 조화라는 개념 아래 공공장소나 대형건물의 실내·외벽, 로비 등에 치중해 있던 벽장식에서 현대에 설치공간과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작품의 유형, 표현양식의 변화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표현양식에 변화해온 흐름을 통해 최근의 작품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현대작가 크리스토퍼 그라이더의 벽장식에서 그는 식물의 씨, 잎사귀, 솔방울과 화석, 암석등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와 이집트의 건축양식에서 식물적인 요소들만 골라 그에 맞게 양식화하고 그의 모든 요소들이 같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작품을 구성한다⁹⁾ 이작품의 표현양식을 보면 흙과 모래를 섞어 몰드를 만들어 테라코타 캐스팅 슬립을 사용하였다. 모래가 주성분인 몰드는 마르는 과정에서 부서지기 때문에 한 작품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보여지지만 표면이 재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독특한 표현양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작

9) 월간도에 「2004 미국 공예협회 볼티모어쇼」2004.4월호

가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생각된다.<도22>또한, 최근에 들어서 판화 기법을 도자에 접목 시키는 새로운 표현방식은 회화적 느낌과 조형성이 결합된 벽장식이며 유약과 화장토, 슬립을 혼합 시도한 도벽에서는 감상자의 시각을 즐겁게 하기위한 작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경향이 나타나며, 유리와 종이, 나무, 섬유, 금속 등 도자중심으로 여러 매체의 접목활용은 시각의 확대로 이끌어 갈수 있으며 표현기술의 수단일 수도 있다. <도23~도26> 반면, 이러한 표현 방법은 외부의 벽장식으로는 내화성, 내구성으로 인하여 건축적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작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 공간의 장식이 관심을 모으면서 욕실공간에서도 타일과 유리가 접목시킨 형태와 벽면의 색채타일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세련된 색채타일을 혼합하므로 공간의 밝고 경쾌감을 느끼는 타일형을 볼 수 있다. 최근 건축가들은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참신하고 인테리어의 장식효과를 줄수 있는 벽장식을 원하는 추세이다. <도27> 이처럼 실내 도자벽장식의 현대에 들어서 기법과 재료에서 융합된 표현양식을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요소가 어우러져 연출하는 표현방법도 퓨전¹⁰⁾의 일종으로 볼수 있겠다. 어느 것과도 서로 다른 형식을 받아들여 무조건적인 융합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다.¹¹⁾ 한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민감한 결과라고 해석 된다.

둘째로는, 설치방식에 따른 판넬형식과 부착형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시대가 거듭 될수록 설치공간에 따른 판넬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술에 대한 작가의 개성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일반인들이 소규모 공간에

10)퓨전의 어원은 라틴어로 "fuse"(섞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후에 영어식으로 명사화 되어"fusion"이란 말이 만들어졌으며 사전적 의미는 :융합, 융해, 합병 또는, 제휴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며 두가지 요소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11) 이미령, 「실내 인테리어의 벽면 장식의 현대적 경향에 관하여」동국대학교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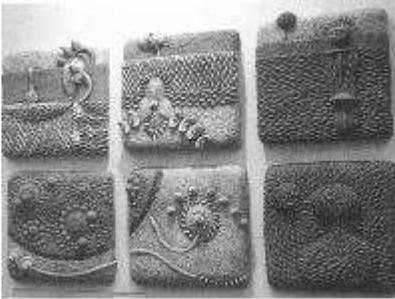
대한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로 인해 벽장식이 건축과 합류한 건물에 부착시키는 부착형식이 장식은 공공장소나 벽면 타일, 주거공간의 아트월(Art wall)등에서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선 판넬형식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부착형식은 벽면에 직접 조형물을 접착시키는 형식이며, 작품의 크기나 색깔, 현장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조형물이 크기와 무게등을 고려해서 건축가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넬형식은 전면형식에 비해 작업면적, 비용 등에서 경제적인 장식기법이며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설치장소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소규모 공간에 대한 장식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작가의 개성이나 표현양식 또한 독창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표현양식의 다양한 흐름을 통해 실내 공간 형성에 기대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도자 벽장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예술의 표현수단으로 도자 벽장식의 활용성 영역은 확대된다.

도자 벽장식은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장르에 비해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변화하는 표현양식을 통해 설치공간의 적용과 재료의 활용에 제한성을 갖지 않는 의식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도자 벽장식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자체의 변화는 작품의 표현양식부터 승화시켜 나아감으로 예술 표현의 기술적 수단은 도자 벽장식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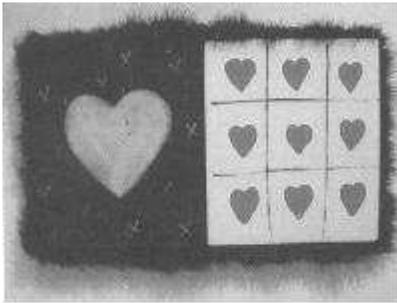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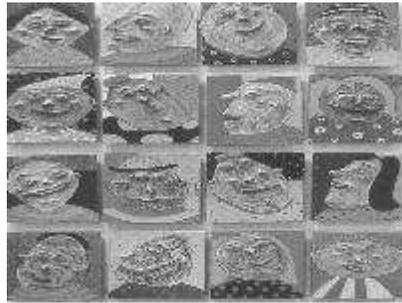
<도22> 크리스토퍼 그라이더 2004



<도23> 꿈-여행, 심연보 2006



<도24> heat in heart 이태홍 2006



<도25> 테브블랙 스테블리 2004



<도26> 도벽, 권재근.안성주 2006



<도27> 욕실, 도미니크 크린슨 2006

2. 제주의 자연환경에 의한 일반적 고찰

1) 자연환경과 조형성

자연은 모든 사물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적, 기능적 통합체를 이루는 실체이며, 사물들이 복합적 구조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조형예술은 자연과 예술의 관계에 생명력을 주는 표현적 관계이며 인간과 자연은 분리 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미의 창조를 추구해왔다. 또한, 자연과 삶의 관계는 문화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일례로,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더라도 옛 선인들은 자연과 일치하기를 기원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방위를 상징하는 수호신의 사신도, 문양의 상징성을 통해 조형성문제는 문화적 형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하늘, 땅, 방향, 그리고 인간과의 조화를 고려했다는 것은 미술문화 발달에 자연과 인간의 삶의 조형예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전통미술의 자연미와 조형미를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서양의 칸트철학에서 자연과 문화의 개념을 요약해보면 자연의 조형적 형상은 정신적 가치와 조화를 존중하고 자연을 극복 할려는 인간중심적인 특징과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조형의식을 파악 할 수 있다. 이것은 지형이나 기후, 풍습에 의한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인간내면에 흐르는 정신적 이미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합류시키는 표현 행위라 해석된다.

이처럼 조형예술에 있어서 삶과 미술의 관계 속에 예술가 자신이 통찰하고 경험한 하버드 리드(Herhert.Read)¹²⁾는 자연은 모방이 아니라 자연

12) 하버드리드(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91

을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 미를 표현하는 예술에 있어서 예술가의 표현은 자연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수용하여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논리에 예술에 의의를 두었다. 그러므로 조형예술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에 미적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술의 본질성을 갖고 자연과 인간은 연관성을 지닌 조형예술의 합일점임을 분석 할 수 있다.

2) 오름, 화산석, 억새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오름의 정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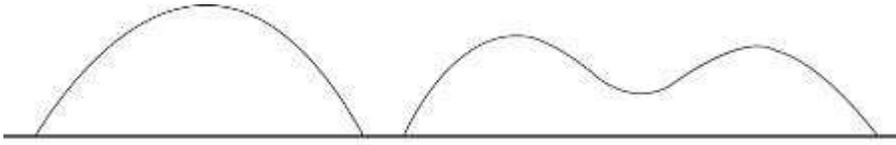
오름이란 독립된 산 또는 봉우리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며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기생화산을 일컫는 말이다.¹³⁾ 일반적으로 오름에 대한 특징은 경사가 굴하지 않고 봉우리가 둥글게 솟아있는 형태를 지칭하며, 산체의 산록상에서 만들어진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 산체를 의미한다. 즉, 분화구를 갖고 있는 내용물이 화산 쇄설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오름의 독특한 이미지는 섬의 특징이며 오름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른 능선과 오름 등성이가 고저를 이루며, 출렁이는 듯한 곡선미로 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오름의 여러 형태 중에 대표적인 형태를 보면 금형산(金型山)과 수형산(水刑山)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도28-도29>

● 금형산(金 型 山)

산봉우리가 둥글고 가마솥 두껍 모양과 철모양의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레하니 들판에 곡식을 많이 쌓아둔 상이다. 산의 성격은 등

13) 김종철 「오름 나그네」 도서출판 높은오름 1995

글머 맑고 경쾌하다.



● 수형산(水刑山)

산의 기세가 큰 굴곡이 없는 반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져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며 산의 기운이 청명한, 즉 선비나 학자 등이 나온다는 설화가 있다.



이처럼 오름의 형태마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 신화, 역사, 문학 등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생활문화가 있고 가치관과 삶의 향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¹⁴⁾

(2) 화산석의 특징

화산섬 제주에서는 화산석의 분류를 크게 용암이 흘러서 암석이 된 돌로써 화산 쇄설암과 화산 쇄설물로 분류 할 수 있다. 용암의 지표에 흘러서 생성된 돌과 용암의 지표로 흘러 나올때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지표에 흘러 굳어진 암석이 대부분 제주도의 지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화산 쇄설암에 속한다. 폭발 후 암석이 쌓아져서 생성된 여러 형태의 오름은 화산 쇄설물로 구분 할 수 있다.¹⁵⁾

14) 신영대 「제주 문화 속의 오름」 2004

15) www.jeu.go.kr 제주도청

일반적으로 화학성분에 따라 현무암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현무암이 신선한 것은 흑회색 이나 검은색을 띠고 흔히 기포가 빠져나간 구멍이 보이는 다공질 조직을 나타낸다.<도30~도31> 현무암의 특징의 가장 잘 나타나고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돌은 생활 속의 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밭의 경계로 쌓은 발담, 집 주위를 둘러쌓고 있는 울담, 산의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담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도32~도34>

그 외에도 신앙이 된돌, 돌 민구류 등 돌이 이용은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외형적으로도 예술적인 미학을 갖고 있다.

(3) 억새의 정의 및 특징

억새는 외떡잎 식물로써 벼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써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해 있다. 산과 들에서 자라며 높이는 1~2m로 뿌리, 줄기는 모여 있고 원기둥 모양이다. 잎은 줄모양이며 길이 40~70cm, 나비1~2cm 이다. 끝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는 거칠고 꽃은 9월에 줄기 끝에 부채꼴이나 산방꽃 차례로 달리며 작은 이삭이 촘촘이 달린다.¹⁶⁾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갈대와 흔히 혼동 된다. 갈대는 강이나 바다 등에서 물가에서 자라며 억새는 산등성이나 언덕에서 자라고, 갈대 이삭은 갈색이고 거칠고 잎이 뭉쳐있으나 억새는 백색에 가까우면서 한올한올 분리가 되며 억새꽃은 그 생김이 백발과 비슷해 쓸쓸한 정서로 와닿는 한편, 제주의 돌담과 색상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볼 수 있다.<도35~36> 억새는 제주의 어느 곳 이든 분포해 있는 것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며 옛 선인들은 억새를 베어다가 초가의 지붕을 이을 때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민구류를 만들때 공예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6) V.H Heywood, 정한호 역 「식물 대백과 사전」아카데미 1991

3)자연에 의한 삶의 형태

제주의 자연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만의 지니는 고유성과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 산과 들, 바다의 대자연속에 제주환경에 대한 전근대적인 것과 현대적인 배경이 결합된 미는 제주문화의 특성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을 지닌 제주의 자연은 우리 옛 선인들이 삶의 지혜가 접목된 실체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환경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368개의 오름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한 화산암이 흔적이 모든 곳에서 분포 되어있다. 또한, 지형적 특색 때문에 제주는 강풍다풍(強風多風)의 섬으로 비와 바람이 많고 화산활동의 흔적으로 지천으로 돌맹이가 많아 농경생활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제주사람들에게 비와 바람은 두려움이 대상이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것은 생계수단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을 조선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삼재(三災)¹⁷⁾의 섬이라 하여 제주민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¹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밭에 돌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장애요인으로 그만큼 작업이 힘들어진다. 여기서 우리 선인들은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밭에 경계가 없어 사유재산의 개념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돌담이다. 돌담의 형태를 보면 강한 바람도 돌담사이의 틈으로 바람을 통과시켜 그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거의 무너지는 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분산시켜 집안의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집의 담장이나 올레¹⁹⁾의 건축 재료로 사용했다. <도37~도39>

17) 삼재(三災): 과거 제주의 열악한 자연환경을 일컬으며 물과 바람과 가뭄의 재앙이 심하다고 하여 삼재의 섬이라 했다

18) 강정효, 「화산섬. 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2004

19) 올레: 거릿길에서 집으로 출입하기위한 골목 (집마당에서 대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돌의 이용이 시작에서 제주인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외형적인 돌담의 미학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돌 이외의 오름은 제주인의 삶 속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368개의 오름은 개개의 오름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할 때 오름의 역할은 제주인의 삶 속에 신앙이며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고단한 삶을 풀어주는 의지의 대상이었다. 오름에 얽힌 술한 설화와 전설에서 오름은 제주인들이 피안의 존재처럼 여겨 영원한 그들의 안식처이고 고향이다.

제주인은 오름에서 낳아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설화가 있다. 이것은 생장 소멸하는 삶의 위치에 따라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범위 속에서 결국 영원한 쉼 자리를 찾아 오름에 귀의하려는 귀소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바람 많은 섬에서 바람과 쌓아온 조상의 생활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제주의 초가집의 건축구조를 보면 오름을 기대고 살아온 제주인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 초가의 원형이나 받담의 높고 낮게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이어져있는 돌담 등은 풍수학적인 오름의 능선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름은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독특한 자연미를 갖고 있으며 색채의 상호배합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후에 의한 오름의 색채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은 한라산의 높이와 땅의 넓이와 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오름의 색채는 한 시야에서 다양한 색채를 바라볼 수 있는 미학을 갖고 있다.

자연풍수관을 보면 그중에 하나인 오름에 피는 꽃인 억새를 들 수 있다. 억새의 뿌리는 땅속깊이 강하게 배어있고 씨를 뿌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을 보여 준다. 억센 억새는 거칠어 보이지만 제주민은

오래전부터 억새를 베어다가 마당에 깔기도 하고 초가지붕을 만드는데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거칠고 질긴 억새의 특징은 제주민의 강인한 삶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돌과 오름과 억새는 제주의 자연에서 삶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굴곡 많은 전통문화 속에는 자연을 순응하려는 지혜와 믿음 속에 지금의 외형적인 자연환경의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 들판 등 광범위하게 자연의 생명력과 제주민이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본 연구는 작품제작에 앞서 유년시절의 감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자연의 형태와 재질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름과 화산석, 억새에 국한되어 살펴보았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역사와 문화의 복합체로 인식하여 문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성을 느낀다 .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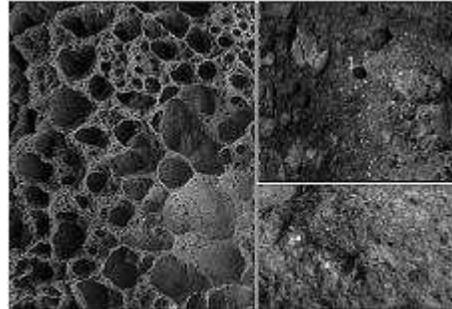
<도28> 오름 유형/금형산



<도29> 오름유형/수형산



<도30> 현무암



<도31> 현무암



<도32> 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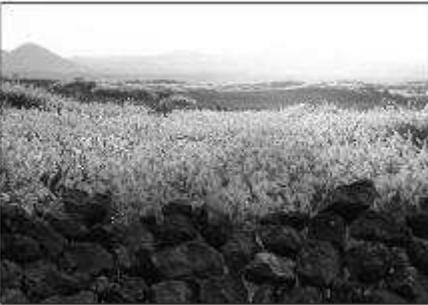
<도33> 울담



<도34> 산담



<도35> 좌측부터 갈대와 억새



<도36> 억새와 돌담의 조화



<도37> 돌담 틈



<도38> 건축재료/모퉁이 돌광



<도39> 건축재료/올레

3. 제작과정 및 작품해석

1) 제작의도와 배경

기억속의 사물들은 누구에게나 지난 일을 연상하게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위력을 생각하게 하고 자연환경의 특색을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섬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은 우리 삶에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감성적 접근과 삶의 실체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필자는 삶의 모습이 접목된 대상인 섬이라는 실체가 지역적인 특색을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한국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되찾을 의미와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문화와 자연과의 관계는 광범위한 개념 속에 존재하지만 유년시절의 기억과 더불어 돌의 질감, 돌담의 형태, 오름, 억새의 사물에 이미지는 자연에서의 시각적인 측면, 내면적인 감성, 촉각성까지 포괄한 구체적 대상이다. 또한 돌담, 오름, 억새의 외형적인 미와 사람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혜를 터득해서 생긴 돌담, 억새, 오름에서 오는 부드러운 곡선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이 배어 있고 자연환경과 싸워온 강인함과 인내는 돌담의 거친 재질감이나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이겨내는 억새와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내면은 접목된 실체로써 제주 자연은 살아있는 자연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내는 이념적 분위기에 대한 간단한 고찰은 가장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조형적 창조들이 심리적 삶의 경험과 활동을 반영해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²⁰⁾ 이러한 자연에 대한 문화적 특색은 예술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주며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물의 이미지를 갖고 형상화한 표현

20) 르네워그 「예술과 영혼」 열화당

양식은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감각들을 반복하여 느끼게 해주는 데 그 감각들의 유사한 성질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감성적 상태로 빠져 들게 된다. 또한 예술의 끊임 없는 소재인 자연은 인간의 심리상태와 삶에 관한 문제 등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색채와 빛 이라는 개념 속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연의 기후에서 나타나는 색채에서 적용하였으며 색채는 빛에게 그 색채를 부여하고 빛은 색채에게 광채를 주는 이러한 결합을 자연에 대한 표현방법에 설득력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는 미적개념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제시함과 동시에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미에 대한 개념 뿐 만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 가치와 자연환경에 대한 공감도가 미학적 개념 속에 내포하고 싶은 제작 의도와 배경이 담겨져 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정서를 통해 주의 환경과 조화된 미술장식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물이 흙이라는 소재로 장식 효과를 줄 때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작방법을 통해 작품에 응용 되었을 때 더 큰 탄력성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넓어지리라 본다.

2.) 제작과정

(1) 성형 및 표현기법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기법을 병행하였고 장식적 효과를 주기위해서 타 재료를 접목해 작품에 대한 신선감과 형태의 자유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형태적인 부분은 돌의 모양, 산의 능선을 형상화 하였으며 각 작품마다 역사문양을 투각해 내부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면질감은 거칠고 형태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위해 조합토와 분청토와 산청토를 5:3:2 비율로 혼합하고 사용하였다.

성형방법은 판상성형과 가압성형 후 음·양각, 투각, 펀칭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 병행하여 저부조 형태의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판상성형과 투각 등에서 나타나는 변형과 수축을 막기 위해 10일에서 15일정도 서서히 건조 시켰으며, 벽면장식에 있어서 감상자의 촉각성을 살리기 위해 수공예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또한, 투각을 통해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지는 공간감 형성을 위해 내부를 유리와 삼베, 한지를 접목하였다. 미국 S perctrum Glass 사 판유리와 분말유리를 이용하여 자연의 기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표현하였다. 색유리는 96-502(Hunter Green), 96-509(NavyBlue), 96-110(Pale Purple), 96-201(Opal Almond), 96-206(Mave Opal)등 주로 사용하였고 기법으로는 슬럼프핑²¹⁾(slumping)과 휴징²²⁾(fusing)의 소성방법을 응용하여 투각 속에 자연의 색채를 연출하였다.

21) 슬럼프핑(slumping):유리를 일정한 틀위에 올려 놓은 다음 온도를 유리의 용점이상으로 높이면 유리가 틀의 모양대로 녹는 성형방법

22) 휴징(Fusing): 유리알갱이, 유리봉, 유리판을 나열하거나 겹쳐서 하나의 형태로 성형되는 방법

<표1> 소지 조합비

원 료	조합토	분청토	산청토	비 고
조합비	50%	30%	20%	

(2) 유약과 소성

본 연구는 자연에 의한 작품 이미지와 맞는 색채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실험해본 결과, 제주 자연의 기후에 따른 변화와 촉감적인 요소를 표출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과 타 재료를 혼합하는 표현방법을 선택하였다. 표면의 재질감 표현에 있어 색채는 중요한 요소이며 빛과 공간에 있어서 색채 형성은 인간의 생활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표면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산화망간(MnO₂)과 산화철(Fe₂O₃) 산화코발트(Co₂O₃)와 산화크롬(Cr₂O₃)을 흙 속에 스며들게 한 후 스펀지로 닦아낸 후 투명유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비율로 혼합하여 영국 Biythe사 14L-114(Blue), 14N-144(SkyBlue)와 일본Nitt사M-128(Green)M-142 (Charte use)P-40(Yellow), M-700(Black), D-3000(Deeppink),M-309(Brown)를 주로 사용하여 스프레이 시유와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표면을 부분적으로 채색하여 주었다.

자연에서 느끼는 사물이 재질감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광택 투명유(표2)을 사용하였고 표면의 거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무광택 투명유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소성중 판상성형과 투각에서 나타나는 뒤틀림(Warping)현상을 막기 위해 마침온도 850℃까지 13시간에 천천히 소성한 후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까지 12시간에 산화소성 하였다. 유리소성은 일반투명유리의 온도보다 연화점(softening point)을 높게 하였다. 그것은 유리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균열과 실투현상(불투명)을 유도하고, 소성에서 얻을 수 있는 도자면과 유리면이 접촉으로 인하여 자연 이미지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판유리 소성은 연화점(softening point) 810℃까지 6시간 소요되었고 분말유리는 연화점(softening point) 900℃에서 30분간 유지시켜 8시간 소요되었다. 유리소성은 2차소성을 마친 도자조형물 표면에 유리를 얹어 3차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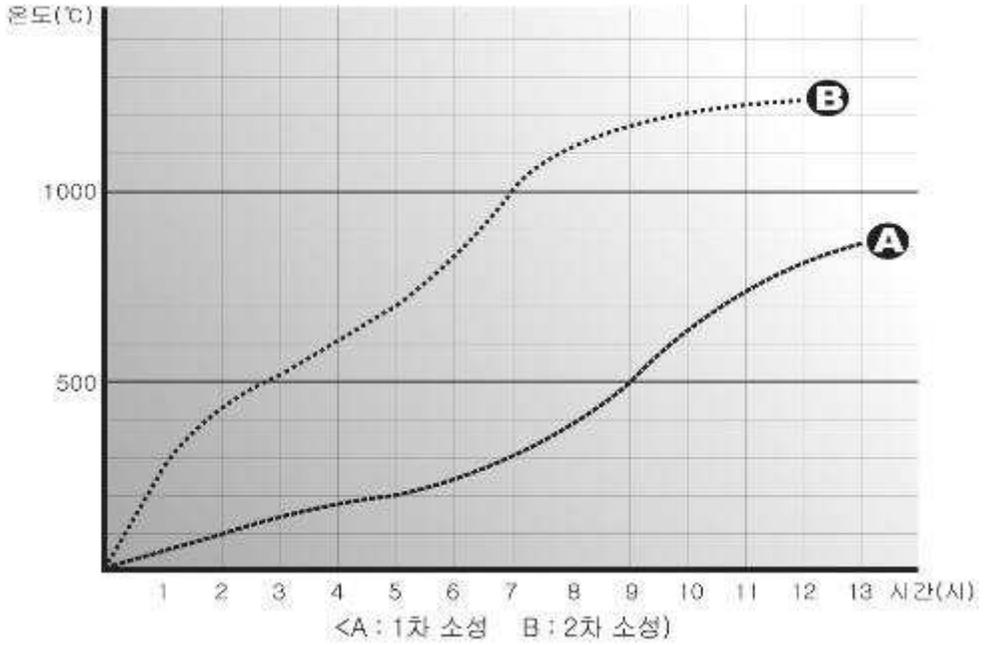
<표2> 광택 투명유 조합비

원 료	규 석	석회석	장 석	카올린
비 율	30%	24%	3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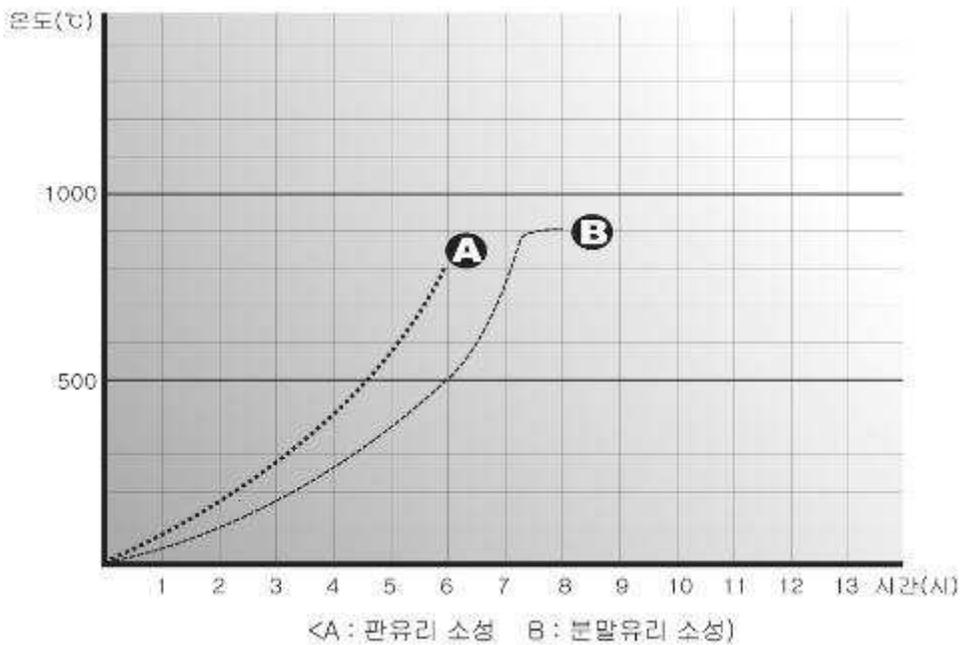
<표3> 무광택 투명유 조합비

성 분	부여장석	백운석	활 석	탄산바륨	카올린	규석
비 율	34.2%	12.5%	14.4%	6.7%	9%	23.2%

<표4> 도자소성그래프



<표5> 유리소성그래프



(3) 작품 및 설명

◆시작품 1 「일출」

오름 위에 비친 일출의 형상을 표현했으며 일출에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제주인의 염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리적인 내면과 시각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질감표현은 오름에서 나타나는 곡선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안정감을 주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투각, 양각기법을 혼합하여 성형하였고 투각한 내부의 해 모양 형태는 해가 뜨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슈퍼화이트 소지로 판상성형 후 분말유리와 전등을 조화시켜 빛의 효과를 주었다.

1차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과 산화코발트(Co₂O₃)를 9:1로 혼합해 채색하고 슈퍼화이트 투명유(표2)를 1:1로 혼합 후 M-142(Chartreue)2.5%, 14N-144(Lightsky blue)0.3%, 14L-144(Blue) 2.5%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고 P-40(Yellow)0.5%, 14-PS(Orange)2.5%를 첨가한 색슬립을 사용해 일출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배경을 부분적으로 강조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투각 내부의 해의 형태는 분말유리 96-110(Pale Purple), 96-201(Opal Almond) 사용해 연화점 900°C 소성하였다.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여 성형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이용해 결합시켰다.

◆시작품 1 「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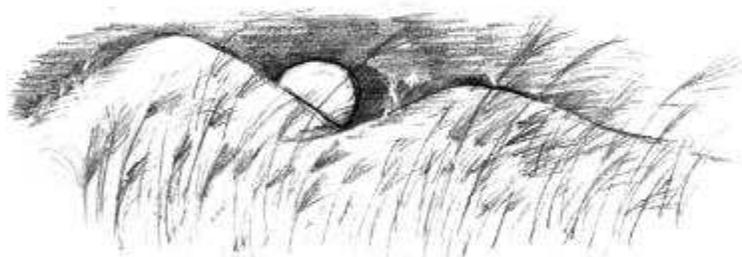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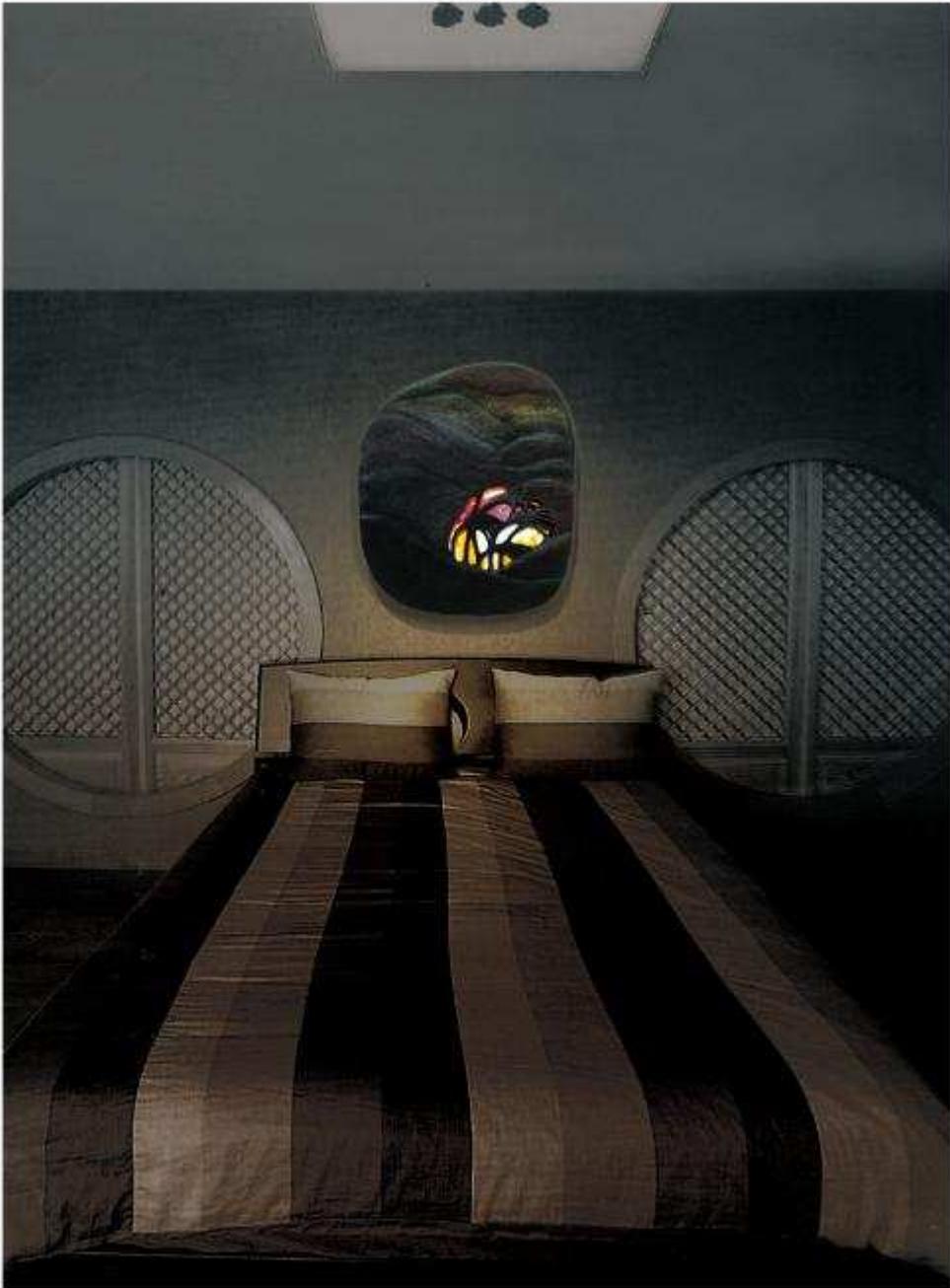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1 「일출」



<주거공간 내부 안방 벽동>

◆시작품 1 「일출」



320×380×100(mm)

◆시작품 2 「돌담 틈」

유년시절 이른 새벽녘 집 마당에서 우연히 바라본 돌담속의 형상을 나타냈다. 돌담 틈 사이로 비치는 억새의 움직임은 돌담으로 인해 바람의 저항력을 이겨내려는 제주인의 삶과도 흡사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돌담 뒤로 새벽을 향하는 밝은 자연풍경은 근면성실한 사람들의 내면의 희망을 형상화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 후 돌담의 입체적 효과를 주기위해 펀칭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투각과 양각기법을 혼합병행 하였다. 내부는 판유리와 전등을 조화시켜 어둠에서 밝아오는 자연에 색채에 포인트를 강조하였다.

1차소성 후 이산화망간(MnO_2)을 얇게 바르고 슈퍼화이트 소지와 투명유(표3)를 1:1로 혼합하여 H-150(Gray)3.6%, 14L-244(Blue)0.7%, M-700(Black)0.5%, 산화코발트(Co_2O_3) 0.3%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에 산화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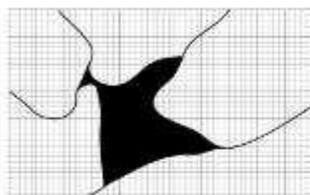
내부 판유리 성형은 석고판 위에 나무 모양의 형태로 판유리 96-502 (HunterGreen), 96-113(Yellow)를 채단 한 후에 슬럼프(Sulmping) 기법으로 연화점(Softening point) 810℃에서 소성하고 유리용 접착제를 이용해 완성된 도자 내부와 결합시켰다.

◆시작품 2 「돌담틈」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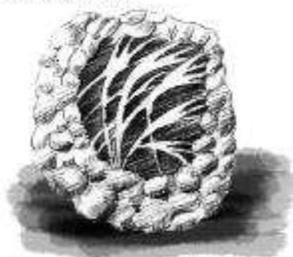
③ original sketch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2 「돌담틈」



<사무공간 입구 벽동>

◆시작품 2 「돌담틈」



330×380×100(mm)

◆시작품 3 「일몰」

오름 등성이에 비친 일몰은 제주의 변화무쌍한 기후에 따라 동일한 시간 때에도 오름마다 다른 변화를 주는 현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날씨변동이 심한 제주의 지형적 특성으로 기상정보가 없었던 옛 선인들에게는 하늘에서 보여 지는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희비(喜悲)가 교차하는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일몰의 흐름을 유리와 전등을 조화시켜 표현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투각기법, 양각기법을 혼합 사용했으며 1차 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과 산화코발트(Co₂O₃)를 9:1로 혼합하여 채색하고 투명유(표3)과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한 후 M-700(Black) 0.2%, N-144(LinghtskyBlue) 0.5%, M-128(Green) 0.5%, P-40(Yellow) 0.5%, 14L-144(Blue) 2.5%, D-3000(DeepPink) 0.3%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 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 산화소성 하였다. 내부의 유리성형은 슬럼프핑(slumping)기법을 응용하여 판유리 96-110(Pale Purple)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절단하여 완성된 도자면 위에 얹어 놓고 연화점(Softening point) 810°C에 3차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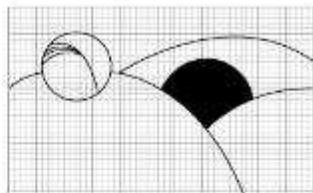
내부의 해 모양은 시작품2와 동일한 방법으로 3차소성 한 도자조형과 결합시켰다.

◆시작품 3 「일몰」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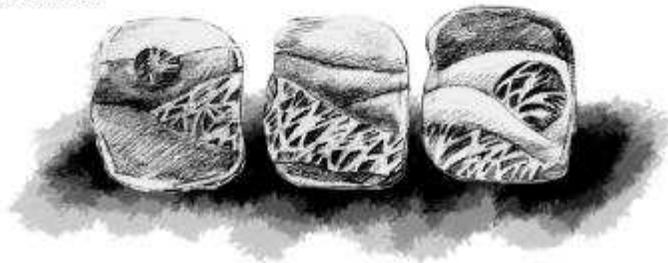
③ original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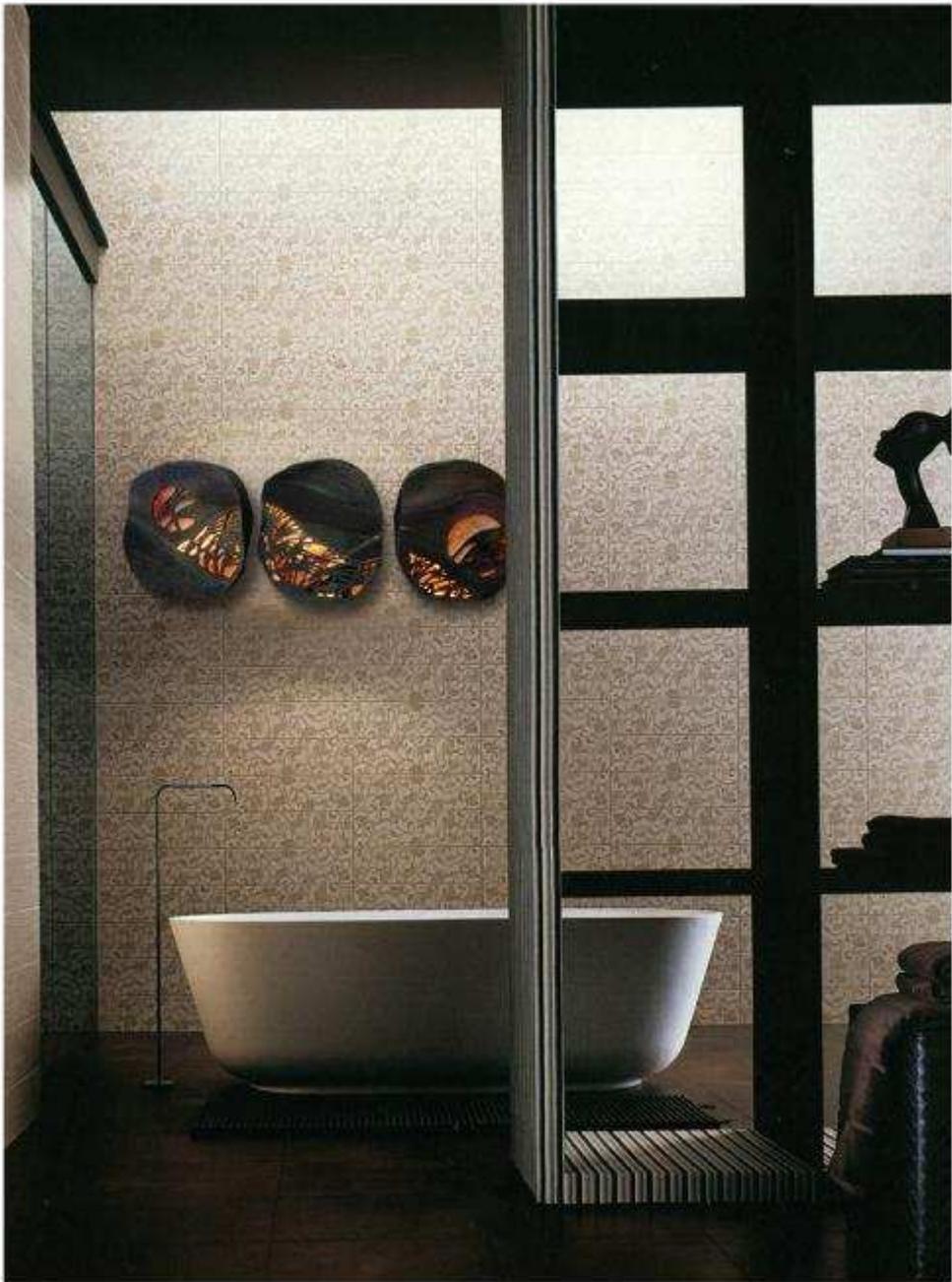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3 「일몰」



<호텔 내부 벽등>

◆시각품 3 「일물」



570×200×50(mm)

◆시작품 4 「제주 사람」

돌과 돌 사이의 틈을 통하여 바람의 저항력을 분산 시키는 지혜를 깨달은 제주인 들이 모습과 돌담의 형태와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돌담을 쌓고 바람을 이겨내려는 역세의 형상은 섬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의 대조적인 내면을 나타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 후 투각기법과 돌의 질감을 음각으로 표현했으며 표면 색채는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나타냈다.

1차소성 후 산화철(Fe_2O_3)을 얇게 채색한 후 음각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스폰지로 닦아주고 투명유(표2)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여 M-142(Green)2.5%, 14N-144(Blue)2.5%, 슈퍼화이트 슬립을 각각 첨가하여 붓과 스폰지를 이용하여 돌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투각 속 내부는 슬럼프핑(Slumping)기법을 응용하여 판유리 96-206(Mave Opal), 96-502(HunterGreen), 96-502(NavyBlue)을 사용하여 돌틈 속에 비치는 바람의 움직임은 울동적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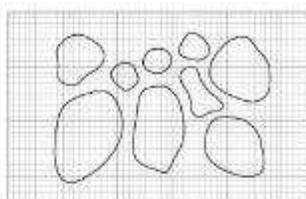
2차 소성은 마침온도 1240℃에 산화소성하고 완성된 도자조형의 내부에 판유리를 얹어 놓고 연화점(Softening Point) 810℃에 3차소성 하였다.

◆시작품 4 「제주사람」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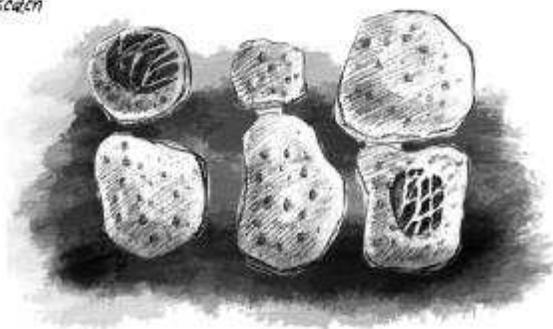
③ original sketch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4 「제주사람」



<주거공간 거실 분리벽면 장식>

◆시작품 4 「제주사람」



640×420×50(mm)

◆시작품5 「돌거품」

물거품 모양의 현무암형태의 표면 재질감과 화산석 속의 서로 다른 오름의 배경을 묘사했다. 기공이 많은 다공질이 현무암으로써, 물거품 모양처럼 형성된 돌 질감을 확대하여 그 속으로 비치는 다양한 오름의 형태를 표현했다.

내부와 외부로 분리되는 공간감을 주어 제주 사람들의 무수한 사연들을 내부의 오름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인 표현을 형상화하였으며, 제주 자연의 구체적 대상을 통하여 표면재질감과 형태에 촉각성과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물거품 모양의 원형에서 느껴지는 의미는 밝고 경쾌함을 나타낸다. 또한 저마다 다른 형태의 오름에서 섬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내면과 조화롭게 매치시키기 위해 구성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제작방법으로는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여 관상성형과 투각, 양각기법을 혼합병행 하였다. 1차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과 산화코발트(Co₂O₃)를 9:1로 혼합하여 두껍게 채색하고 양각이 된 부분만 스펀지로 닦아주고 투명유(표3)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여 14L-144(Blue)2.5%, D-3000(Deep pink)2.5%, M-142(Chartreuse)1.5%을 각각 첨가 한 것과 하얀색 대용으로 슈퍼화이트 슬립 3%를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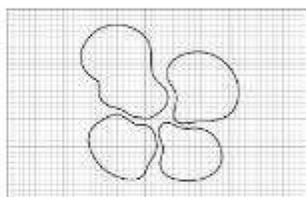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 산화소성 하였다. 완성된 내부와 외부의 도자 조형물을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시켰다.

◆시작품 5 「돌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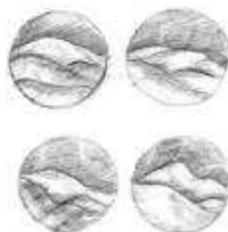
① *ground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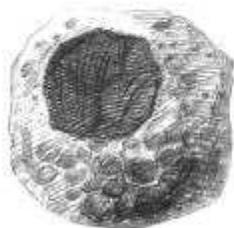
② *point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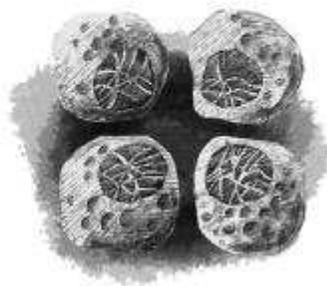
③ *original sketch*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5 「돌거품」



<주거공간 거실 수납장 벽장식>

◆시각품 5 「돌거품」



440×440×60(mm)

◆시작품6 「오름의 신비」

저마다 오름의 형태에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에서 오는 다양한 자연의 흐름을 표현했다. 시작품(3)에서 일몰의 변화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오름의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외부의 표면에서 어두운 날씨를 표현했으며 내부에서 타 재료인 유리를 이용해 각기 다른 색채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오름의 능선에서 보여 지는 곡선이 부드러움과 경쾌함은 표면질감과의 대조적인 느낌을 주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투각기법을 사용했으며 1차 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을 얇게 바르고 투명유(표3)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여 14L-144(Blue)2.5%, 14N-144(LightskyBlue)2.5%, M-128(Green)0.5%, M-700(Black) 0.2%, P-40(Yellow) 0.3%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내부는 슬럼프핑(Slumping)기법을 응용하여 판유리 96-502(HunterGreen), 96-206(MaveOpal), 96-509(NavyBlue), 96-201(MaveOpal), 96-110(PalePurple), 96-201(OpalAmnd)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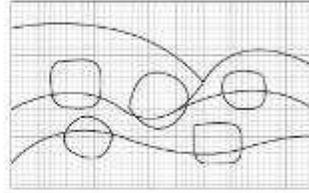
2차 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 산화소성 하였으며 유리소성은 완성된 도자조형 내부에 판유리를 얹어 놓고 연화점(Softening Point) 810°C에 3차소성 하였다.

◆시작품 6 「오름의 신비」

① ground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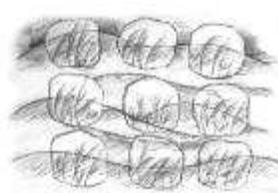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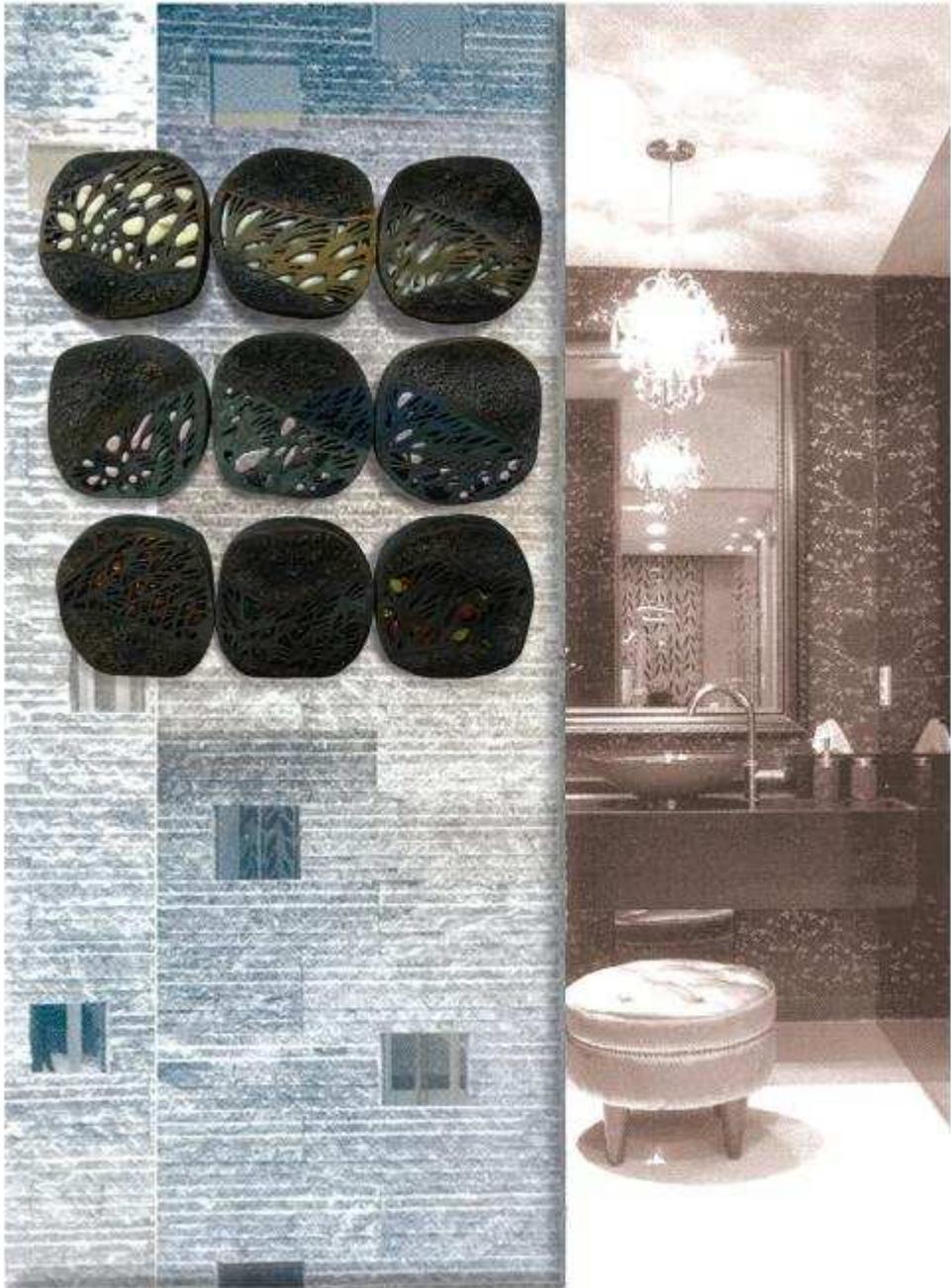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6 「오름의 신비」



<호텔내부 헤어숍 입구 벽장식>

◆시작품 6 「오름의 신비」



700 × 850 × 50 (mm)

◆ 시작품 7 「오름을 품은 억새와 돌」

제주의 들판을 보면 돌담과 억새와 오름의 배경을 빼놓고는 한라산을 볼 수 없다. 지역적인 특색이 잘 나타나 있고 오름의 곡선과 돌담의 곡선, 억새의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을 표현하였으며 돌담이 형태에서 부지런 섬사람들이 내면을 울동감 있게 묘사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투각, 양각기법을 혼합병행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을 채색하고 스펀지로 닦아낸 후 투명유(표3)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여 N-144(LightskyBlue)0.5%, 14L-144(Blue)0.2%, M-142(Chartreuse)0.25%, M-700(Black)0.5%, M-128 (Green) 3%, 171202(Red)0.2%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에 산화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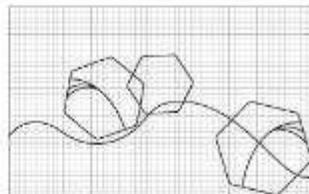
내부의 유리성형은 슬럼프핑(slumping)기법을 응용하여 96-502(HunterGreen), 96-206(MaveOpal), 96-509(NavyBlue)을 사용하여 흡과 유리에서 자연의 질감을 다양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완성된 도자조형 내부에 판유리를 얹어 놓고 연화점(Softening Point) 810℃에 3차소성 하였다.

◆시작품 7 「오름을 품은 억새와 돌」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7 「오름을 품은 억새와 돌」



<주거공간 거실 벽장식>

◆시작품 7 「오름을 품은 여새와 돌」



800×800×70(mm)

◆시작품8 「역새를 담은 돌」

다공질의 현무암의 표면질감을 표현한 작품이며 돌담 속 역새의 배경 이미지를 얻어서 기공이 많은 현무암 속에 조화시켰으며 자연적인 배경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시작품(5)에서와 동일한 외부와 내부의 공간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작방법으로는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여 판상성형 후 투각된 부위를 제외하곤 펀칭기법을 응용해 표면의 재질감을 나타냈고, 내부는 판상성형 후 역새 문양에 음·양각 기법을 사용 하였으며, 내·외부의 결합으로 수공예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역새풍경의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차 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과 산화코발트(Co₂O₃)를 8:2로 혼합하여 채색 하고 음각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스펀지로 닦아준 후 투명유(표2)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고 14L-144(Blue) 2.5%, D-700(Black) 2.5%, M-128(Green)2.5%, D-3000(DeepPink)와 슈퍼화이트 슬립 0.5%을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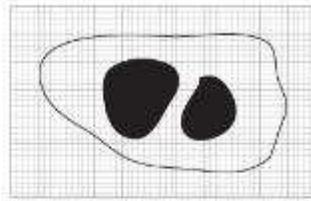
완성된 내·외부의 조형물을 공업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결합시켰다.

◆시작품 8 「억새를 담은 돌」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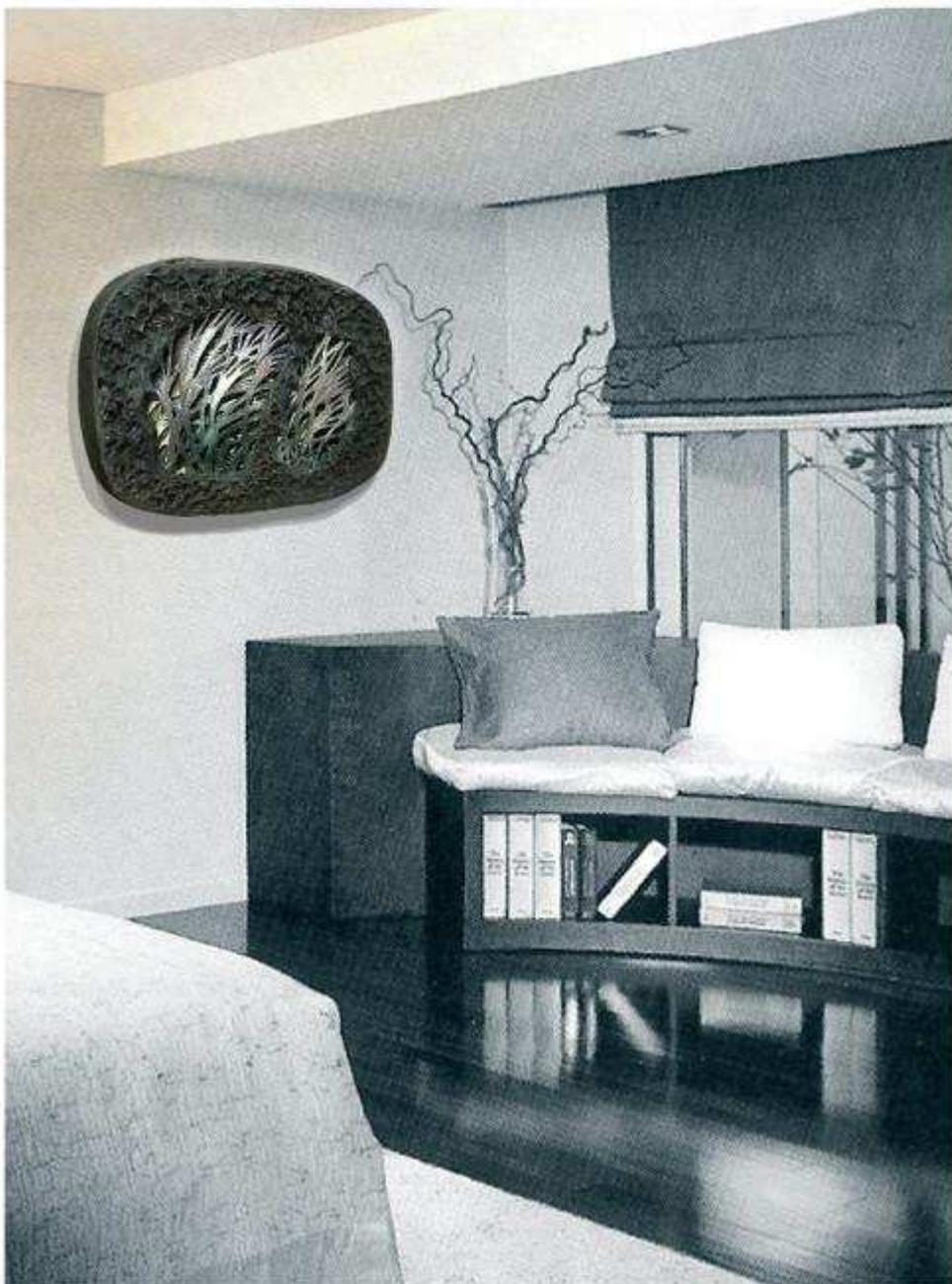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8 「억새를 담은 돌」



<주거용 사무공간 벽장식>

◆시작품 8 「억새를 담은 돌」



470×320×70(mm)

◆시작품9 「밭담」

아무리 작은 밭담이라도 경계로써의 돌담은 존재하는 제주의 밭담 풍경을 묘사했다. 밭담의 미학은 끝없이 이어지는 연속성에 있다.

밭담의 형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밭담속의 풍경을 삼베와 한지를 이용해 조화시켰다. 밭담의 형태를 형상화 하여 자연스럽게 면분할 하여 자연적인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밭담 속의 곡물이 색상을 삼베와 한지를 이용하여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제주인이 근면성을 나타냈다. 삼베와 한지의 재질감에서 느껴지는 강함은 제주인들의 돌이 이용이 시작 되면서 형성된 밭담에서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강인한 이미지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 후 핀칭기법과 투각기법을 병행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산화철(Fe_2O_3)과 산화크롬(Cr_2O_3)을 8:2로 혼합하여 채색한 후 M-309(Brown)2.5%, M-700(Black)1.5%, 14L-144(LightskyBlue)2.5%, P-40(Yellow)0.5%, M-128(Green)2.5%, 슈퍼화이트 슬립 3%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 °C에 산화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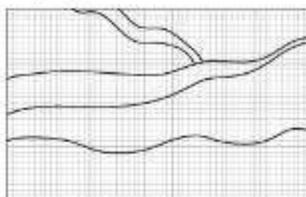
내부는 염색된 삼베와 색 한지를 공예용 본드로 접착시켰다.

◆시작품 9 「밭담」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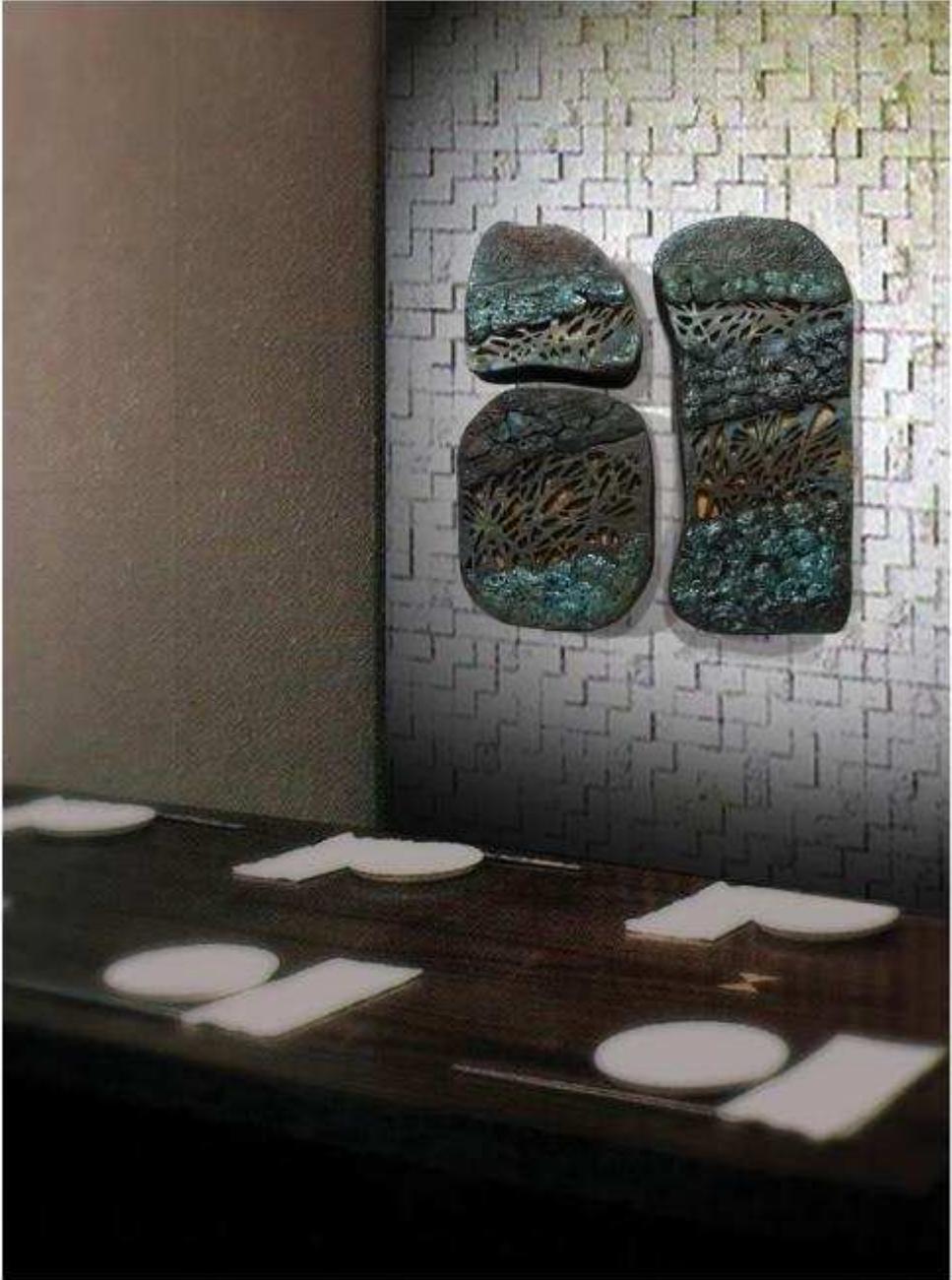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9 「발담」



<식당 내부 벽장식>

◆시작품 9 「발담」



370×440×70(mm)

◆시작품10 「고랑(古浪)」

해안가 마을의 화산석 들 중에는 표면에 사람 발자국과 동물이 발자국 모양의 돌이 표면현상을 이미지화 하였다.

물결 문양의 돌 표면 속에 고인 물과 야생화를 형상화 하여 맑고 청명한 자연의 신비를 묘사하였다. 돌 속에 비친 야생화는 유리를 녹여 생동감을 주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 후 음·양각기법을 병행하였으며 1차소성 후 이산화망간(MnO₂)을 채색하고 돌출된 부분은 스폰지로 닦아주고 투명유(표3)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1:1로 혼합하여 14N-144(Blue)0.5%, M-128(Green)2.5%, D-3000(Deep pink)2.5%를 각각 첨가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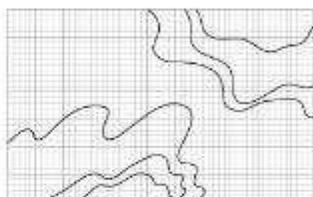
2차소성은 마침온도 1240℃에 산화소성 하였으며, 유리소성은 휴징(Fusing)의 성형방법으로 분말유리 96-502(Hunter Green), 96-110(Pale Purple)을 발자국 모양의 표면 위에 된 넣고 연화점 (Softening Point) 900℃에 3차소성 하였다.

◆시작품 10 「고랑(古浪)」

① ground photo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c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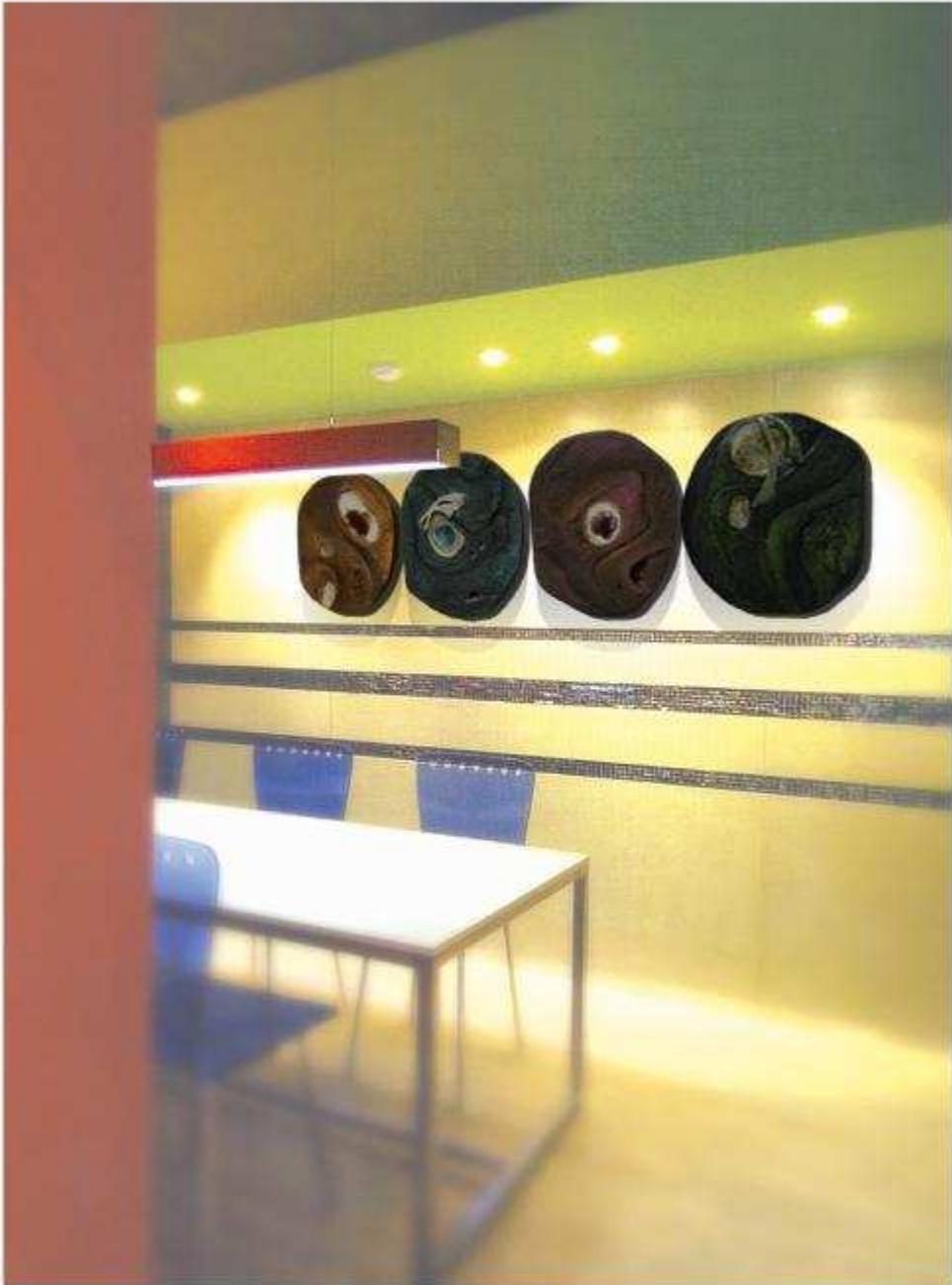
④ idea scatch



⑤ design scatch



◆시작품 10 「고랑(古浪)」



<카페 내부 벽장식>

◆시작품 10 「고랑(古浪)」



1000×280×60(mm)

◆시작품11 「물허벅」

수도 설치가 되기 전 제주여인들은 물허벅을 등에 지고 샘을 찾아 오름 길을 따라 물을 길어 나르는 형상을 이미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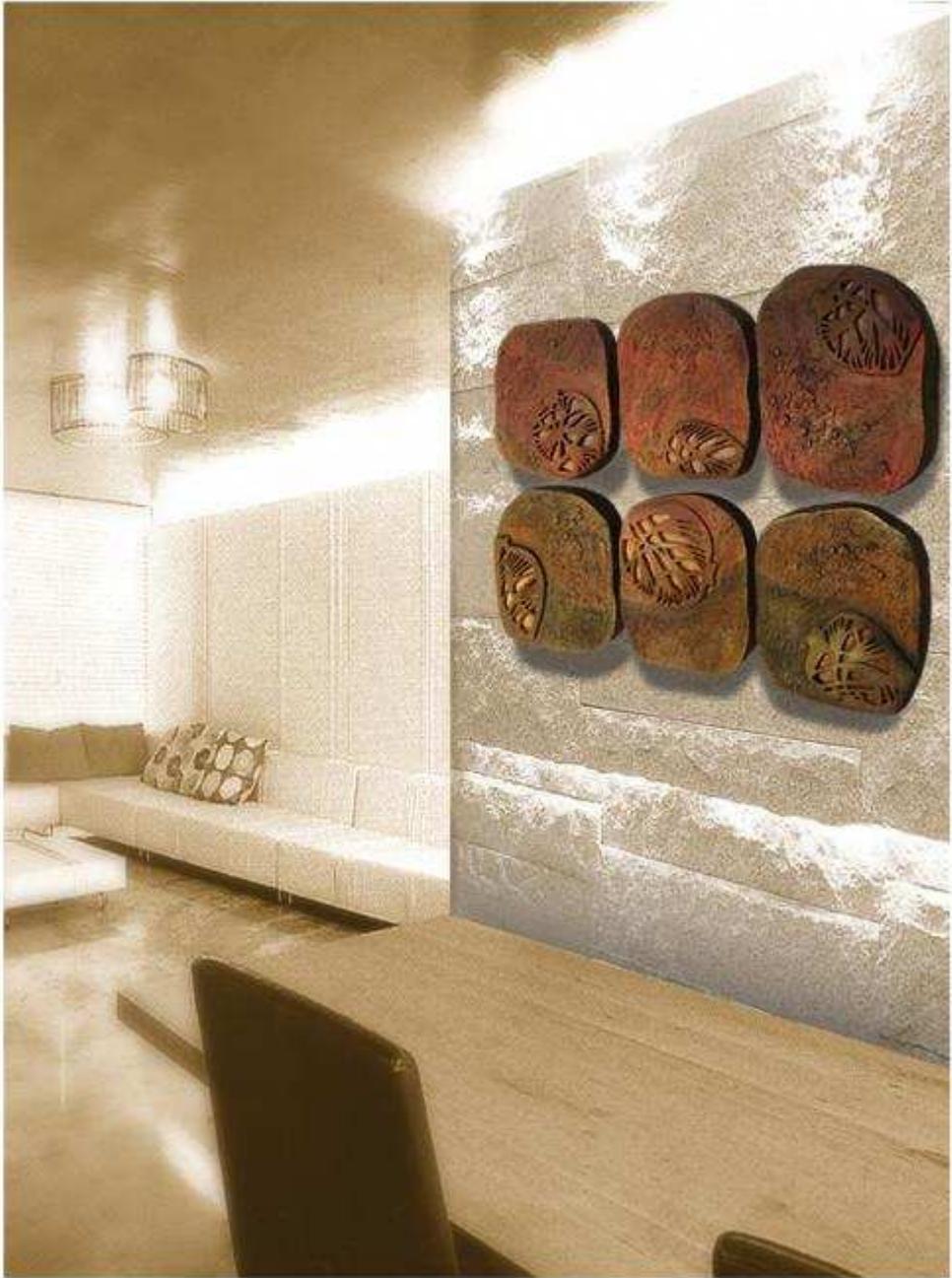
물허벅에 담긴 식수는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평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오름의 능선에서 자연의 기후를 나타내었으며 물허벅의 형태에 삼베를 접목시켜 제주여인의 강함과 근면성을 표현하였다.

들판에 풀과 자갈이 많았던 지형적 특색을 표현하기위해 소량의 카울린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 균열을 유도하여 거친 표면 재질감을 나타냈다.

제작방법으로는 판상성형과 투각기법, 펀칭기법을 혼합병행 하였으며 1차소성 후 산화철(Fe_2O_3)을 채색한 후 스폰지로 닦아내고 투명유(표2)와 슈퍼화이트 소지를 혼합하여 M-700(Black)2.5%, M-309(Brown)3%, P-40(Yellow)2.5%, D-3000(Pink)2.3%, M-128(Green)2%를 각각 첨가하여 붓과 스폰지를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투각 속 내부는 삼베를 재단하여 공예용 본드로 접착시켰다. 2차 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 산화소성 하였다 .

◆시작품 11 「물허벅」



<병원 내부 휴게실 벽장식>

◆시작품 11 「물허벅」



650 × 450 × 50 (mm)

◆시작품12 「역새 오름」

오름과 역새밭이 조화를 나타냈다. 유년시절 바라본 오름과 역새의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들판의 배경을 형상화 하였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풍경의 묘미는 자연의 위력을 생각하게 한다.

자연과 닮은 제주인의 형상을 자연의 조화에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오름과 역새의 조화를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표현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가압성형과 투각, 양각기법을 혼합병행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이산화망간(MnO_2)과 산화코발트(Co_2O_3)를 9:1로 혼합하여 채색한 후 스폰지로 닦아주고 투명유(표2)와 슈퍼화이트 소지를1:1로 혼합하여 14N-144(Blue)2.5%, M-128(Green)2.5%, M-700(Black)0.5%, M-309(Brown)2.5%를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 소성은 마침온도 1240°C에 산화소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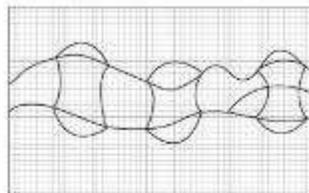
완성된 도자조형 내부에 삼베를 재단하여 공예용 본드를 사용해 접착시켰다.

◆시작품 12 「억새오름」

① ground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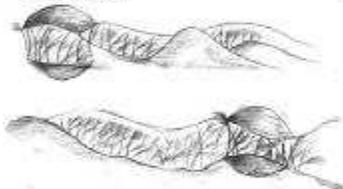
② point line



③ original sketch



④ idea sketch



⑤ design sketch



◆시작품 12 「억새오름」



<공항 내부 휴게실 벽장식>

◆시각품 12 「역세오름」



850×500×50(mm)

Ⅲ. 결 론

오늘날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려는 욕구를 지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간예술로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실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들은 종합 예술의 관점에서 미에 대한 적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자 벽장식의 적용이 조형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자연 환경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였으며 벽면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과 미술장식품으로 미적효과를 지니며 공간의 적용범위, 표현양식에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색채, 재료등에서 장식이 주는 효과적 특성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도자 벽장식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벽장식이라는 개념은 여러 장르의 예술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임을 의미하며 하나의 장르를 중심으로 다른 장르들이 그 밑에 부속이 됨을 의미 한다. 이 논리의 의미는 작가의 개인 창작만을 위한 순수미술이기 보다는 다른 장르의 조화, 결합 될 때 그 의미는 더 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제작과정의 배경이었던 인간의 삶속에 비친 섬이라는 자연환경의 문화적 특색을 조형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제주이미지와 실내공간의 특성을 주변환경과의 조화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 하였다. 제주자연에 대한 형상화는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한국의 미로 계승되어야 할 전통적인 가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포괄적인 사고를 갖고 작품을 제작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점이 작품이 완성되었을때 자연 친화적인 촉감과 실내공간과의 조화에 의미를 두고 작품제작에 임했다.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인 오름, 돌, 역사의 형태와 재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성형, 건조, 시유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테크닉과 여러 단계를 나눠서 수작업을 해야 하는 세밀함이 요구되었다. 또한, 작품의 표현방법에 있어 타 재료인 유리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 경험을 필요로 했다. 온도의 급격한 변화나 충격에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결점과 유리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순물이나 기포가 혼입되면 투명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자주 접했다. 유리성형에서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했었던 것이 아쉽지만 유리매체를 접목함으로서 표현양식에 대한 적용의 의지를 갖을 수 있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흙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요업 재료에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연구목적에 부합된 이론적인 배경에 설득력 있고 심도 있는 연구내용에는 미흡하지만 실내공간에서 도자 벽장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선행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문헌>

- . 강정효, 「화산섬.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2004
- . 김종철, 「오름나그네」 높은오름 1995
- . 김원룡, 「한국의 벽화고분」 일지사 1980
- . 김원룡, 「한국 고미술의 이해」서울:서울대학교 출판사 1981
- .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 국립박물관, 「제주 역사와 문화」통천문화사 2001
- . 니콜라스 펍스더, 「근대건축과 디자인」미진사 1991
- .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열화당 1991
- . 박대경편, 「디자인 용어 사전」서울 미진사 1981
- . 신영훈.조정현,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기문당 1990
- . 신영대 「제주문화 속의 오름」탐라문화 연구소 2004
- . 이재삼, 「도벽@환경도예」제3도예연구소 2001
- . 하버트리드(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을유문화사 1991
- . 「"육조의 표준화 및 타일의 규격 대형화에 관하여」서울:건설부 1979
- . 「진정 의미로써의 환경벽화 국내 상황」미술세계 1986.3월호
- . 월간도예 2002년 1월호~ 2006년 9월호
- . 월간 크라트 2005년 9월호~2006년 9월호
- . David Hanilton 「Architectural Caramics」
London:Thamas & Hudscn 1978
- . V.H. Heywood, 「식물 대백과」 도서출판 아카데미 1991
- . www. jeju.go.kr(제주도청)

<학위논문>

- . 박경자, 「실내공간의 벽 조각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80
- . 장민호, 「장식의 현대시적 의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2000
- . 이미령, 「실내 인테리어의 벽면장식의 현대적 경향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2001
- . 이재영, 「실내공간을 위한 도예 벽장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ior Ceramic Wall Decoration
Focused on the Nature of Jeju Island*

Song, Mi ja

Major in Ceramic Design.

Department of Ceramic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angmy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Park, Suk-Woo

Legitimacy is required to create visual environment by connecting natural environment and art work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the modern society. Moreover, as the life style has changed by the social culture, the range of life space is importantly regarded and the interest in the fields making environments beautiful has increased.

Hence,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indoor ceramic wall decoration tha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s. In design of the work, the focus was made on the harmony between the expressive style of ceramic wall decoration that can bring decorative effects on indoor wall and the characteristics of island culture contained in the natural environments of Jeju. Also,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eramic wall decoration and the modern trend, efforts was made to produce the harmony between life culture experienced in nature and nature-friendly spaces.

As the production method, slab-building was mainly used. Visual effects were produced by forming the sense of space separat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parts using open work design and depressed and embossed engravings. In order to emphasize the color and light from nature, various color paints, color glasses and lamps are harmonized creating various expressions. By mixing with other materials with consideration of each work's characteristics, handcraft effects were emphasized. Stability was achieved using the bas relief style of three-dimension.

It is expected that the ceramic wall decoration produced as such using realistic and concrete targets in nature and conceptual targets existing inside of humans are used as a plastic art providing vital of life as well as to create indoor environment.